



KSC News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September, October 2007 Edition



Young Leaders Workshop VI First Retreat in St. John's House in Tacoma, WA

The sixth Life in the Spirit Seminar for young adults was held August 17 thru August 20 at Western Inn in Tacoma, Washington.

Seventeen young adults from Tacoma, Seattle, Vancouver, and Toronto attended the retreat. The speakers for the retreat were, Father Joseph McGowan, Deacon Joseph Lee, Margaret Kim, Julia Lee, Michael Kim, and Andrew Lee, who was also the retreat facilitator. Daniel, Jasmine, Sunny, and Eddy from Tacoma community and Henry from Seattle community served as music ministers.

The retreat started with an opening Mass, celebrated by Father Joseph McGowan. His Homily on Gods Love helped open our hearts to the Holy Spirit. The participants divided into groups, and shared their experiences. Some of the testimony was simple but genuine, which made it more powerful.

On Saturday, the participants spent the afternoon going to confession, and to the prayer room. Many adult volunteers from Tacoma and Seattle Charismatic Prayer group joined us on Saturday to give support to young adults.

By Saturday evening, they were ready for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During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some young adults experienced the wonderful gift of praying in tongues for the first time.

Although the facility was

adequate for our retreat, one major disadvantage of having a retreat at a hotel was, there were too many distractions and temptations. But, praise to Jesus, the participants overcame the challenges. It brings to mind what happened at Duquesne University forty years ago. As you know, after the retreat, without any instructions, they gathered in the chapel where they experienced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Just like the young adults forty years ago, our young adults chose to spend time with God. Amen?

On Sunday, after attending Mass at Tacoma Korean church, we moved to St John's House to complete the retreat.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St. John's House on our last month's KSC newsletter. The young adults shared their testimonies, thru which we experienced unlimited God's Love and His capacity for forgiveness.

In order to continue to grow together in the Spirit, KSC has put together a workshop for young adults on the last weekend of September – 9/28/07-9/29/07. The aim is to equip them so that they can reach out to the youth at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just as the disciples were compelled to reach out to the unreached after receiving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own lives at Pentecost.

Contact Helen Choi, Julia Lee, or Andy Lee for attending the workshop.

Helen Choi: helenc27@gmail.com 425-443-3946

Julia Lee: admin@kscusa.org 253-223-8775

Andy Lee: ndnglee@hotmail.com 425-239-8578

“Sure. I'm your servant”

김 영화 엘리사벳, 켈가리 본당

“이건 모두 주님 탓이에요. 공동체가 없는 곳에 살게 하신 당신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거라구요.” 가끔씩 인터넷을 통해 성령세미나라든지 성령기도회의 동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우린 저기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식어 있는거라며 남편과 함께 투덜거리곤 했다.

KSC와 북미 전역에 있는 한인 성당 사이트를 들락 거리며 때와 장소가 맞으면 언제든 달려 갈 마음의 준비를 해둔 채 안테나를 세워 놓은지 2년... 북미주 40주년 기념 전국 성령 대회를 한단다. 그것도 토론토에서. 짧은 순간 여기서 토론토까지 적어도 4일은 가야 할텐데,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 작은 아이 학교도 며칠이 남았는데 하고 고민이 되었다. 순간, 비록 투덜거림이긴 하지만 그동안 주님과 좀 더 깊게 교제하고 싶어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만나길 원하고계심을 느꼈다.

세미나에 참석하겠노라 신청을 해 놓고 이번엔 주님께서 주시는걸 하나도 흘리지 않고 받아 올 수 있도록 기도로써 준비를 했다. 5년전 사전 지식 없이 무조건 참석하라는 신부님의 강요에 처음 성령 세미나를 접하며 어쩐지 주님이 주신 걸 모두 받아 오지 못한 것만 같아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탓이다.

세미나 기간동안 주님은 나의 작은 요구조차 잊지 않으셨다. '주님! 제가 욕심 많은것 아시죠? 여기서 토론토까지 저희 4식구가 다녀오려면 숙박비며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근데 저희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빠집니다.' 불쌍해 보였던지 그 즉시 응대하셨다. '내가 다 채워주마.' 하고.

두번째로 세미나 기간동안 나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 주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사제단의 안수로 시작된 기도회 시간, 주님께서 바로 말씀 해 주셨다. '너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너는 이미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그 동안 마음이 열리질 않아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내게는 그건 참으로 커다란 기쁨이었다.

세번째는 영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이었다. '주님! 저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지 벌써 6년차입니다. 심령 기도도 좋지만 이제 천사의 목소리로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신부님의 안수가 시작되면서 내 입에선 벌써 영가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님! 저희가 미련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대체 이게 저희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나이다. 말씀하시려거든 저와 제 남편에게 똑 같이 말씀하소서. 그럼 제가 주님의 뜻인지 알겠나이다'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안에서 남편에게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주님이 뭐라셔?' 했더니 '나를 증거하여라' 하셨단다. 이럴수가... 그 시간 주님께선 내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증거하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하고.

세미나 기간동안 주님은 그 동안의 나를 돌아 보게 하셨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만 주님을 찾고 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기도를 할 때건 하지 않을 때건, 주님을 바라볼 때건 바라보지 않을 때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때로는 뜨거움으로 때로는 잔잔함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시며 그로 인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 것 같다.

친구라는 영화에서 유오성이 '니가 가라 하와이!' 하니까 장동건이 '내가 니 시다발이가?' 해서 한동안 유행어가 되었던 적이 있다. 지금까지는 '해라' 하시면 '어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이제 '니가 가라. 저 아프리카 한복판.' 하고 말씀 하시더라도 'Sure. I'm your 시다발이.' 할 수 있을것 같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행복함으로 터질 것 같나이다.

한국 성모자 · 순교자 부조상 완공 정진석 추기경 축복 미사 집전

워싱턴 대성당 ‘한국 성모자, 순교자 부조상’ 설치가 9월 7일 완료되고 9월 22일 서울 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집전으로 축복 미사가 거행되었다.

축복 미사는 오후 1시, 5천 여 명의 한인들과 워싱턴 대교구 우엘 대주교를 비롯한 가톨릭 지도자, 이태식 주미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축복미사를 거행했다.

워싱턴 대성당 한국 성모자, 순교자 부조상 건립은 2003년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워싱턴 대성당에 한국 신앙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승인한 뒤, 10만 여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한인 신자들이 4년여에 걸친 모금과 준비 끝에 이뤄졌다.

정 추기경은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성당에 한복을 입은 예수와 성모 마리아, 한국 순교자들의 부조상을 설치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한인들이 "이제 미국 사회의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주류로 진입했음을 드러내는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 추기경은 한국 성모자, 순교자상의 워싱턴 대성당 설치에 또 "우리 신앙의 뿌리, 핏줄의 뿌리를 일깨워주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며 "성당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한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성당 입구 왼쪽에 설치된 순교자상은 한복을 입은 성모 마리아 양쪽으로 남녀 순교자가 순교 직전 절규하는 모습이며, 순교자들 머리 위에는 첫 한국인 신부인 김대건 성인이 선교사 영입을 위해 타고 다닌 고난의 돛단배와 순교자들이 갇혀있던 감옥의 쇠창살이 새겨져 있다.

대성당 입구 오른쪽에 들어선 성모자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성모 마리아가 지켜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담았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성서 말씀을 표현한 이 작품에 나오는 예수와 마리아는 한국의 전통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으며, 술 항아리도 전래의 오지그릇 형상이다.

워싱턴 국립 대성당은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내 특정 교구에 속해 있지 않으며, 크기도 세계 7번째의 대규모여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순례지이자 관광 명소로 꼽힌다.



감사합니다.

<KSC 사도 요한의 집>

홍 만후	타코마 WA	\$1,360.00
최 종기	타코마 WA	\$,1000.00
유 미영	타코마 WA	식기
홍 만후	타코마 WA	식탁

<KSC>

유 바오로	서울	\$1,100.00
달라스 기도회	달라스 TX	\$300.00
황 의인	오스틴 TX	\$300.00
이 기옥	저먼타운 TN	\$100.00

달라스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텍사스 전 지역 대상, 중남부 17차



텍사스 각 지역 한인 교우들이 모이는 성령 세미나가 달라스에서 개최됐다. 8월 2일 부터 2박 3일 간 달라스 교구 피정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박창득 몬시뇰, 정건석 신부 (중남부 성령 봉사회 지도 신부), 이창재 부제 (KSC 회장) 및 KSC 봉사자들이 지도했다. 이 세미나에는 달라스, 포트워스, 오스틴, 휴스턴, 샌 안토니오, 현즈빌 등 각 지역에서 5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중남부 봉사회에서 17번째로 주최한 세미나였다.

세미나는 모두 7개 강의와 소모임 토의로 진행됐다. 소 모임에서의 진솔한 대화는 모두 믿음 안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달라스 기도회 봉사자들의 간증 또한 주님과 함께한 축복받은 삶을 확인하며 새롭게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느끼게 했다.

2007 쇄신 세미나 일정

일자	행사명	주최 (협조)	문의
9/9 - 12	성령 안의 삶세미나	동중부 봉사회	최 테레사 443)717-0886
10/19 - 21	성모 신심 세미나	KSC	이 은경 253-223-8775
11/15 - 18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타코마 본당	이 은경 253-223-8775
12/26 - 29	Young adult Life in the Spirit Seminars	동남부 봉사회	심에밀리아 407-927-8080
12/26 - 29	Young adult Life in the Spirit Seminars	타코마 본당	이 은경 253-223-8775